

2월의 입학식

2487명 신입생 입학 대학원생 559명도

2013학년도 학부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아라캠퍼스 체육관에서 거행됐다. 이번에 입학한 학부 신입생은 모두 2487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입생 총원율은 100%에 도달했다.

올해 입학식은 매년 3월 첫 개강일에 열렸던 전례와는 달리 올해는 2월에 열렸다. 대학본부는 신입생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개강일 수업 보장과 신입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허향진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대학생활 동안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1학년 때부터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허 총장은 “이상을 높이 세우고, 열정과 패기로 마음껏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수진(회계학과 1)씨가 입학생 대표선서를 했다.

입학식에 앞서 허향진 총장과 학부 위원들은 신입생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 도서를 전달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입학식에 이어 열린 축하공연에서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미래, 뜻 모아 제대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악기를 다루는 교수들과 음악학부 학생의 독주가 이어졌다. 제주대 교수, 도내 대학의 외국인 교수, 음악학부 재학생의 독주와 제주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주PMC에서 난타 공연 등을 선보였다.

한편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비롯해 각 특수대학원에서도 정원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해 총 559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각 대학원별 신입생 인원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227명 △행정대학원=30명(정원외 4명) △경영대학원=60명 △교육대학원=159명(정원외 4명) △사회교육대학원=20명(정원외 1명) △산학대학원(전기)=32명 △통역대학원=22명

김명지 기자

받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아래 대표적 제주도 이전 기업인 Daum과 EMLSI를 비롯해 중부발전, 도암 엔지니어링, 토백 엔지니어링 등 5개 산업체가 주도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인 트랙(Track)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대표적 사업으로 전국대학의 벤치마킹 사례로 널리 소개되고 있다.

Daum과 EMLSI는 IT 계열, 중부발전과 도암엔지니어링은 기계·에너지 계열, 토백엔지니어링은 건설 계열이다. Daum·EMLSI·중부발전은 2007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 도암엔지니어링·토백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다음 임직원들이 겸임교수로 직접



지난달 26일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학부위원들이 신입생들에게 도서를 선물하고 있다.

간호대학 졸업생 42명 국가고시 전원 합격

제53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학과 졸업생 42명 전원이 합격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제53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1만3799명이 응시해 1만2987명이 합격, 전국 평균 합격률 94.1%를 기록했다.

간호대학은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기록한 이래 2012년에만 94%의 합격률을 보였다. 1997년 간호학과에서 2011년 3월 간호대학으로 승격됐다.

산업체 맞춤형 교육 산학 ‘윈윈’

다음 등 5개 기업체와 트랙 운영
기업은 인력… 대학은 취업성과

제주대가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사령

수습기자 김하은(사회2)
정기자에 임명함
문화기획부장 김소영(국문3)
특별기자에 임명함
이창성 3월1일자
제주대신문



토백 엔지니어링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Daum 트랙’은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이중 37명(72.5%)이 기업에 취업했다.

반도체 기업인 ‘EMLSI’도 총 22명의 졸업생중 18명이 EMLSI 및 관련기업에 들어가 81.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안기중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는데다 취업의 질까지 우수하다”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보다 많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교내순환·야간버스 확대 운영

교내 순환버스 시간·노선 수정… 학생편의 고려
시험기간 중앙도서관 야간 버스 노선 5개로 확대

교내순환버스와 중앙도서관 야간 버스의 시간과 노선이 지난 4일부터 바뀌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정문-제2도서관-해양과학대학 1호관-대학본관-학생회관-인문대학(서)-학생생활관-인문대학(동)-중앙도서관-의학전문대학원-공과대학 4호관-해양과학대학 4호관-교양강의동-해양과학대학 1호관-제2도서관-정문으로 노선이 수정됐다. 기존 하루 4번만 거쳤던 동물병원을 앞으로는 계속 운행한다. 해양과학대학 4호관에서 끝나는 노선을 교양강의동, 해양과학대학 1호관, 정문까지 내려온다. 인문대학부터 해양과학대학 4호관까지 적은 학생 수만 타고 운행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노선을 정문까지 늘린 것이다. 이와 함께 버스는 시계방향(정문-인문대학-공과대학 4호관-정문)과 시계 반대방향(정문-공과대학 4호관-인문대학-정문)으로 운행된다. 교내순환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대로 교차 운행을 하며, 버스는 하루에 6회 다닌다. 버

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20분까지는 8분 간격, 9시 20분부터는 10분 간격이다. 다만 오전 8시에 출발하는 버스는 시계방향, 오전 8시 8분 출발하는 버스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오부터 낮 2시까지 한 대로만 운영된다.

중앙도서관 야간버스도 대폭 바뀌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365일 내내 구제주, 신제주 통합노선 한 대로 운영된다. 이 노선은 제주대-제주 시청-문예회관-인화초-제주여상-웅담사거리-웅담1동주민센터-중앙여중-터미널-오라오거리-신제주로터리-한라병원-노형로터리-부영아파트사거리로 이어진다.

시험 2주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와 시험을 치르는 주의 목요일 총 8일은 3대가 운영된다. 밤 12시에 구제주 코스 한 대, 신제주 코스 한 대가 투입되며 1시에 구제주, 신제주 통합 노선이 운영된다.

시험 전 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주의 수요일까지는 5개의 노선이 운영된다. 1노선은 구제주, 신제주 통합 노선이다. 2노선은 제주

대-시청-(구)신성여고-중앙여중-웅담사거리-관덕정-제주여상-문예회관을 지나간다. 3노선은 제주대-시청-오라오거리-신제주로터리-한라병원-노형로터리-부영아파트사거리로 버스가 운행된다.

제4노선은 제주대-제주여고-탐라중-한마음병원-대림2차아파트-동광초-제주은행-인화초-사라캠퍼스-삼양초-삼화부영1차아파트-화북주공4단지로 노선이 운영된다. 제5노선은 제주대-이도주공2단지아파트-보건소-신제주로터리-한라대-노형주공1단지-도두동입구-외도부영아파트를 잇는다.

운행시간은 제1, 4, 5노선은 밤 12시 한 차례, 제2, 3노선은 밤 1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세 차례 운행된다.

한편 버스노선 변경에 따라 구성원들의 혼란도 일부 있었다. 특히 인문대학의 경우 정류장이 바뀌면서 버스를 제대로 타지 못한 학생도 있었다. 또한 버스 차량이 바뀐 사실을 모르는 학생도 많았다.

김인철(총무과) 실무관은 “야간 버스는 학생들이 편히 귀가할 수 있도록 바꿨다”며 “순환버스는 종전 버스를 운영하던 유한고속의 입찰 포기로 당분간 임시버스로 운행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재일제주인 음악가 양방언 아라뮤즈홀서 공연

7일 오후 무료 입장

재일제주인센터 주최



일본으로 건너갔다. 양씨가 1997년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곡을 쓴 것이 ‘프린스 오브 제주’다.

양씨는 또한 일본의과대학에 진학하기도 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음악인 ‘프런티어’가 발표됐을 때 재일제주인 의학도 출신 뮤지션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준수한 외모와 함께 화제가 됐다. 이후 그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세계를 오가며 음악 협재리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게임 ‘아이온’,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등의 다양한 장르의 OST와 광고음악, TV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게임음악까지 만들면서, 솔로 앨범도 꾸준히 내놓았다.

이창익 재일제주인센터장은 “재일제주인과 제주도민의 문화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세계적 음악가인 양방언의 특별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광고디렉터 박규호씨가 게스트로 함께 참여한다. 입장료는 무료. 행사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문의 = 재일 제주 인 센터 (064) 754-3975-3978

양방언 특별콘서트

재일제주인 양방언의 음악과 인생

2013. 3. 7. (Thu) pm 4:00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4·3 공부하고 싶어 제주대에 입학했어요”

사학과 새내기 조형선씨… 5·18 공부하다 4·3 만나 “4·3에 무관심한 학생들에게 아픈 역사 알릴 것”

1만4000명여의 제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슬픈 역사, 4·3. 하지만 많은 제주의 젊은 세대들은 이 아픔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4·3을 공부해보고 싶어 제주대에 입학한 학생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아픔 5·18의 고장, 전남 광주에서 온 조형선(사학과 1)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조형선씨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역사를 전공하고 싶다는 꿈이 지금까지 이어져 사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역사를 좋아하는 조씨는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자연스레 제주 4·3을 알고 싶어졌다.

“지난해에 4·3캠프를 다녀오게 되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보니 4·3을 공부하고 싶어요. 4·3을 공부하기에는 당연히 제주

대가 좋을 거라는 생각에 입학했죠. 원래는 전남대 사학과에 진학하려 했어요. 그런데 4·3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죠.”

조씨는 “지난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최한 전국 중고학생 ‘우리역사바로알기’에 작품을 출품했어요. 그때는 5·18에 대한 왜곡된 사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 같은 내용으로 논문을 썼다”면서 “그 때의 경험을 돌아보며 4·3에 대한 논문을 써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주의 역사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길 계획이다. 제주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현장을 찾아 유적의 공기를 맡아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또한 4·3에 대해 제주의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제주에 터를 잡아 사는 학생들에게 4·3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는 멋진 포부도 밝혔다.

“제주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4·3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역사 캠프에서 제주 출신 학생들을 만나볼 때마다 4·3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어요. 제가 제주를 돌아다니며 4·3을 연구해 학생들에게 4·3에 대해 알리고 싶어요.”

조씨는 이를 위해 대학이나 역사단체에서 주최하는 4·3세미나, 워크숍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어릴 적에는 역사유물 발굴에 관심이 많아 고고학자가 되길 꿈꿨는데 4·3에 대해 많이 공부해서 나중에는 4·3을 전국에 전파하는 강연자가 되길 희망했다.

“앞으로 제주4·3평화재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3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요. 또 각종 행사에 참가해서 경험도 쌓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 배울 수 없었



던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물론 어느 다른 대학생처럼 자유로운 생활도 맘껏 즐길 것이다.

“대학생이 되었으니 마음껏 놀아보고 싶어요. 물론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죠. 그래도 수능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면서 달리기만 했던 전과 달리 여유도 갖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요.” 김하은 기자

극예술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공연 열어

<연극 동아리>

2·3일 ‘30일간의 야유회’

극예술연구회(회장 김민진)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공연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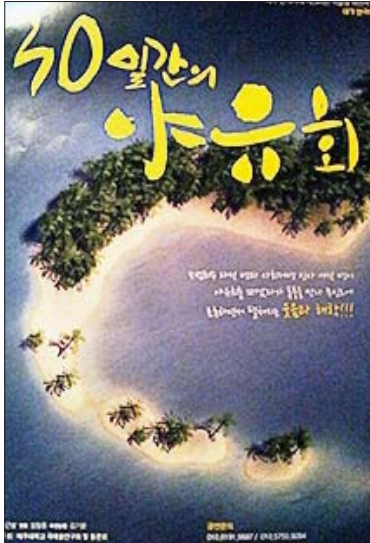
극예술연구회는 1982년 창립해 워크샵공연, 아라공연, 정기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100여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제주 최대의 대학 연극 동아리이다.

이들은 ‘F학점의 천재들’, ‘철부지들’, ‘굴레’,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 등 손꼽히는 소설과 극작품

들은 물론 ‘死’, ‘삶’, ‘달팽이의 울음’ 등 직접 창작한 작품들도 무대에 올려왔다.

극예술연구회가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30일간의 야유회’(이근삼 작)다. 모범죄수 다섯명과 사회 저명인사 여섯 명이 바다로 야유회를 떠났다가 폭풍에 휘말려 30일간 무인도 표류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을 다룬다. 풍자와 해학을 통해 인간의 위선과 현대인의 내포한 치부와 모순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30주년을 기념해 재학생뿐 아니라 동아리 출신 선배들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 마을 신앙’ 펴내

탐라문화원

구소(소장 윤웅택)가 요즘 제주도 마을포제와 신년과세제에 대한 원형을 엿볼 수 있는 저서 『제주도 마을신앙』(현웅준 지)을 펴냈다. 이 책은 현웅준 명예교수의 제주도 부락제당, 제주도토산당gut, 제주칠머리당gut 등의 자료를 엮었다.



‘인문학연구 제14집’ 발간

인문과학연구

구소(소장 박여성)가 1월 인문학연구 제14집을 발간했다.

이번 인문학연구에는 김치완(철학과) 교수의 ‘인성론 ‘되묻기’의 의미 검토’를 비롯 7개의 논문과 정창원(사학과) 교수의 동아시아와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노트가 실렸다.



다음, 6년째 매년 2천만원씩 장학금 전달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최세훈)은 지난달 22일 공과대학 2호관 회의실에서 트랙에 참여하는 우수학생 10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올해로 6년째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Daum트랙은 제주로 이전한 다음과 제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2013학년도 제1학기 신규 임용 전임교원 프로필



양웅준 (영어영문학과)
조교수-영어통사론
△학사: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
△석사: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영어통사론
△박사: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어통사론
박사논문: 英語의 韓國語의 相에 대한 比較分析



Daniel Kim (경제학과)
조교수
△학사: University of Minnesota bachelor of Science
△석사: Virginia Tech Master of Science
△박사: University of Notre Dame Philosophiae Dpactor
박사논문: The political econom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reform :Industrial Policy, Financial Crises, and the path of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Policy



송상근 (지구해양학과)
조교수-기상학
△학사: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해양과학
△석사: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대기과학
△박사: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대기과학
박사논문: Synoptic meteorological features affecting Asian Dust transport and its quantitative estimation



천영진 (생물학과)
조교수-식물생태학
△학사: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생물학
△석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식물생태학
△박사: Iowa State University 진화생물학과 진화생태학
박사논문: The role of adaptive evolution of phenotypic plasticity and historical population genetic processes in purple loosestrife (Lythrum salicaria L.) invasion in North America



이운경 (식품영양학과)
조교수-영양생리학
△학사: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
△석사: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Nutritional Sciences Nutrition
△박사: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Nutritional Sciences Nutrition
박사논문: Anti-inflammatory and anti-atherogenic effects of 9E,11E-Coniugated linoleic acid



전상훈 (건축학부)
부교수-건축실무및시공분야
△학사: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석사: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구조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박사논문: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공사비 가중 노동량 기반 진도율 예측모델



강경자 (간호학과)
조교수-성인간호학
△학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성인간호
△박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성인간호
박사논문: 관상동맥질환자를 위한 동기증진교육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최보영 (교육학과)
조교수-상담심리
△학사: 한양대학교 교육학 교육학
△석사: 한양대학교 교육학 상담심리
△박사: 고려대학교 교육학 학교상담
박사논문: An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for Counseling Services



이창섭 (법학과)
부교수-형법
△학사: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박사논문: 한국형법의 간경정법에 관한 연구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공부를 하라

2013학년도 입학식사

2013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새봄의 훈풍과 함께 국립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식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입학을 제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온갖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는 축하와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제주대 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김태환 총동창회장님, 인민찬 기성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대학교 입학식이 2월에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학기 전에 입학식을 갖게 된 것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첫 학기의 시작부터 안정된 면학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올해 행사부터는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해 교수·직원·재학생·신입생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으니, 멋진 추억으로 남을 세출발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일삼(13) 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은 지난해 ‘개교 60주년’에 이어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는 해에 제주대학교 가족이 되었습니다. 개교 61주년을 맞는 제주대학교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전 분야 인증을 받아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중앙일보 ‘교육여건 부문’ 평가에선 국내 대학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학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24개국, 146개 대학, 23개 기관과 학술교류 또는 학생교류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리대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대학에 파견된 교환학생 수는 240여 명으로 3년 전보다 6배나 늘었고 우리대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1000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앞으로 명문 상위대학으로의 도약을 통해 지금까지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주대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역동적인 제주대학교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지방대학에 다닌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말끔히 떨쳐버리고 당당히 정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주제적이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학 공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 두 가지 사항은 꼭 실천하기를 당부합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 유형의 책을 두

루 읽어야겠지만.

특히 고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고전은 단순히 옛 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편적이고 학문적인 주제를 다루어 널리 읽히는 책이요, 오랜 세월을 거치



면서 인류의 지침으로 자리 잡은 명예로운 저작이 바로 고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유산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유산은 지나간 삶의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인류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삶의 지혜와 교양은 물론이요, 학문적 성취의 기반도 고전 읽기를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로벌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국경이 무의미할 정도로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촌입니다. 따라서 외국어 실력을 탄탄히 쌓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최첨단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탁월한 전공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열린 시야와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만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당당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4년의 대학생활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능력은 아주 많은데 아직 조금밖에 꺼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활을 통해 그것을 최대한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명품인 재료서의 잠재능력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을 높이 세우고, 열정과 패기로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우리 제주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폭도 확충하고, 각종 해외연수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취업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은 제주대학교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친지 여러분!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우리대학교에 맡겨주신 믿음과 기대를 기억하면서 이들 모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고 가르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을 격려해주시고, 자녀들의 배움터인 제주대학교의 발전에도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며, 여러분의 새 보금자리인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세계를 향해 비상을 꿈꾸는 청춘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 향 진

2013학년도 1학기 전임공원 공채를 통해 9개 분야 9명의 교수가 3월 1일자로 새롭게 임용됐다.

이번 교수 공채에 9명 모집에 72명이 지원해 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학 분야에 가장 높은 17: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새로운 도전 멈춰선 안 돼” 공감 토크쇼로 신입생 마음 사로잡아

신입생 예비대학 토크쇼 강기태, 안영일, 엄지홍

기초교육원은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Pre.Univ 더 높이! 더 멀리!’ 라는 주제로 신입생 예비대학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명사특강, 캠퍼스 투어 등으로 이뤄졌으며, 학습전략 노하우와 선후배 만남 등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줬다. 제주대신문은 신입생 예비대학 중 지난달 21일 열렸던 명사특강 내용을 정리했다. 명사특강은 MC윤정훈씨와 더불어 강기태(트랙터 여행가)씨, 안영일(DCG 대표)씨, 엄지홍(웃걸이 독서대 디자이너)씨 등이 참여했다. 이 특강은 신입생들이 질문하고 명사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입생들은 외국어 능력,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의응답했다.

▶ 신입생(이하 신):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은.

안영일(이하 안): 대학시절에 학점보다 외국어 공부를 더 중요시했다. 장학금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 학점을 제한한다면 학점을 높게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필요한 학점에 맞게만 공부를 하고 그 외에는 외국어 공부에 시간을 할애했다.

예전에 EBS에서 전국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좋아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라’, ‘매일매일 공부하라’, ‘소리 내어서 연습하라’는 것이다. 어렵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토익이나 토플 등 시험점수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콘텐츠를 활용하지 못하고 시험관련 서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문제다.

또 시험을 치고 나면 공부에 손을 놓아 매일하지 않는다. 듣기를 통해 소리 연습을 해야 하는데 독해에 더 치중해 공부를 하다 보니 외국어 실력이 제대로 늘지 않는다.

윤정훈(이하 윤): 외국에 나가려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강기택(이하 강): 나는 트랙터를 통해 세계 각지에 나갔다. 하지만 외국어 능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지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통

역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할 때는 예상 질문을 짜고 대답을 외워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다.

▶ 신: 아까 본 영상에서 엄지홍씨가 ‘why’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지홍(이하 엄): 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때 지금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다. 즉 ‘why’라고 말하라는 것은 질문을 하라는 얘기다. 자기가 궁금한 질문을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라는 의미로 말했다.

내가 대학시절에는 강의나 강연을 들을 때면 하나라도 질문을 했다. 다만 하나의 원칙을 갖고 질문을 했다. 맨 처음 혹은 마지막에 질문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질문을 하면 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강연이 끝나고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에게 먼저 묻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강: 명사들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과 이야기를 더 하거나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맨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또 차를 타고 가는 순간까지 쫓아가서 궁금한 걸 묻는다.

그런 방식으로 인연을 맺어왔다.

▶ 신: ‘나에게 이것 하나뿐이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무언가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어떤 방법이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나.

안: 나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일밖에 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나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그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기에 한 가지에만 매몰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상에 모든 길은 통한다고 생각한다.

강 “안 되는 것은 없다. 이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얼마만큼 자신이 노력을 했는지 시험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현실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기에 한 가지만 매몰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상에 모든 길은 통한다”

엄 “과거의 어려웠던 경험이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스스로 노력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엄: 나는 간혹 가다 외롭고 조언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딱칠 때 나는 6~7년간 작성해왔던 노트를 펼쳐 본다. 그 노트에는 그 당시 떠올랐던 생각, 일기 등 다양한 내용이 적혀있다. 또 상황과 상관없는 책, 영화 등을 본다. 그러다 막힌 문제와 관련된 답이 나올 때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색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강: 나도 이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국내 트랙터 여행을 마치고 해외를 가려고 했다. 그런데 입국 문제, 트랙터를 가져가지 못하는 법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3년이 지체됐다. 해외로 트랙터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작가가 실수를 해 내가 참 여했던 동양트랙터가 아닌 LS트랙터 사진을 걸어났다. 이 계기로 LS트랙터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랑 같이 미국 트랙터 여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우리 회사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기회는 우연스럽게 찾아온다.

즉, 안 되는 것은 없다. 이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얼마만큼 자신이 노력을 했는지 시험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열심히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 신: 무전여행의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나.

강: 화장실은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 시청 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 맥을 것이나 잠자리는 주변 환경을 이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무전여행 노하우보다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좋은 여행 방법을 소개해주고 싶다. 가고 싶은 기업의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은행이 있다면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을 모두 돌아다니는 것



지난달 21일 열린 명사특강에 윤정훈(맨 왼쪽)씨의 사회로 강기태, 안영일, 엄지홍씨가 토크쇼를 하고 있다.

이다. 그 지점을 사진을 찍고 지점장에게 사인을 받는다. 모든 국민은행을 돌아보면 서 지점마다 장·단점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면 면접 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신: 일이 힘들거나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엄: 하는 일에 만족하지는 못한다. 우리 집안이 피자 가게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구나’,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되는구나’라고도 생각했지만 부모님, 손님들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그 경험이 현재에 많은 도움이 됐다. 만약 그 당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못했더라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또 자신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노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다. 일만 시간의 법칙 내용처럼 일정 시간을 투입해야만 한다.

김동현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5일부터 새롭게 연 JDC 대학생 아카데미에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배우자

김만덕의 시대정신과 글로벌 제주인

양원찬 / 서울제주도민회 회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표상 김만덕

본업은 정형외과 의사다. 제주도를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서울제주도민회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제주도민의 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또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고향의 7대정관 선정을 이끌었다. 새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김만덕기념사업회는 남다르다. 이 단체는 처음 배우 고두심씨와 인간문화재 한상수씨 등 여성친목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만덕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려보자며 2004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2007년엔 제주에서 천 섬 쌓기 행사를 연 데 이어 2009년에는 만 섬 쌓기 행사를 성공시켰다. 이때 거둬들인 수익으로 베트남에 만덕 이름을 건 학교 두 개를 지었다.

김만덕 할머니는 불굴의 의지로 해체된 가족을 통합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일에 매진했다. 소위 말하는 여성 CEO로 성공을 거뒀다. 그녀는 말이나 전복 유통에 이미 눈을 뒀다. 이걸 가지고 전라남도 강진까지만 가면 말 값의 3배를 받았다. 그렇게 최고의 거상이 된 것이다. 제주에는 농토가 없다보니 사람들이 전라도 영남 바닷가로 도피해 움막 짓고 살았다.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 조정에서는 250년 동안 출륙금지령을 내렸다. 김만덕은 유일하게 여성으로 정조의 부름을 받아 육지로 넘어갔다. 제주인, 특히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켰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을 맡아서는 제주와 육지를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고향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지 보다 도민회가 고향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심하고 있다. 제주출

신으로 산업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경제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실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고향에 대한 사랑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이다. 회원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용해 취업률 제고에 힘을 보태겠다. 제주도의 대외 교섭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로벌 마인드 가진 리더 돼야

우리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 앞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등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며 제주도는 7대자연경관 선정이 도민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어 제주도민은 친절을 생활화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거리를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통역사를 만들어 영어권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세계인이 제주를 찾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의 역할도 크다. 글로벌 인재로 우뚝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슴을 열어야 하고 여러 다양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다. 서울이든 제주든 워싱턴이든 시간적 공간은 있지만 장소적 공간이 없어졌다. 맥루한이 이야기했던 지구촌이 가능해져 전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에 제주 학생들도 가족 지 말고 자신 있게 나가야 한다.

또한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해야 한다.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내 의견과 다르다고 서로 원수 취급을 한다. 강정마을은 완전 봉쇄됐다.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상대방을 틀린 것으로 쉽게 치부해 버린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대



“자기와 조금 다르다하여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

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불구대전의 원수처럼 대한다. 객관적 기준과 권위가 부재하다 보니, 다들 자기가 기준이 된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다르다와 틀리다고 하지 말고 너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인정해야 한다.

실패서 성공 노하우 배운다

내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큰 꿈을 가져야 한다. 좌절하면 안 된다. 젊었을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 과정을 거쳐야 성공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과 꿈을 가져라.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제주 출신도 세계에 도전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해낼 수 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토론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과정을 갖춰 갔으면 한다.

바람의 아들, 전설로 돌아오다

이종범 / 한화 이글스 코치

노력 없는 천재 없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야구를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내가 공부에 취미가 없음을 알고 운동을 권유하셨다. 원래는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야구부 밖에 없었다. 몸집이 큰 선수들보다 앞서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프로 2년까지 하루 빠짐없이 스윙을 300개씩 했다. 선수 생활 내내 ‘참을 인’을 세기며 버렸다. 사람들은 나를 ‘바람의 아들’로 불렀다. 그라운드에서 달리기 빠르다는 얘기는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 빨리 뛰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시속 150km로 타석에 들어오는 공을 치려면 타자는 0.05초 만에 스윙해야 한다. 투수가 공을 던지려는 순간 바로 배트를 휘둘러야 그 공을 칠 수 있다. 스포츠 세계는 자기 능력이 뛰어나야 남들이 알아준다.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비장의 무기를 지녀야 한다. 공부는 10등만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만 스포츠에서는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들과 똑같이 했다면 열심히 한 게 아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어릴 적 가난이 인생 바꿔놓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엔 부잣집 친구들이 부러웠다. 세월이 흐르고 자식을 기르다보니 가난이 오히려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야구 선수를 하면서도 내 가족에게 이런 가난을 주고 싶지 않아 앞만 보며 노력했다.

어렸을 적의 가난이 없었다면 큰 꿈을 이룰 수도 없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올해 3월에 34년간의 야구선수 생활을 마쳤다. 현역으로는 최고령이었다. 유니폼을 벗고 나니 할일이 없었다. 세상은 말로만 이종범을 좋아했지 내게 평가를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야구복을 벗은 이종범을 찾는 이도 없었다. 이렇게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라운드에서 다시 돌아온 야구천재

일본에서 4년간의 선수 생활은 인생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당시 마운드에 나설 때는 안타를 쳐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를 악물고 ‘다 죽었어’라며 마음을 다졌다. 일본에서 도루 하나 치면 당시 돈으로 1800만원을 받았다. 20개만 쳐도 20억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 경기장에 있는 일장기를 보면서도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현역생활을 은퇴한 이후 7개월 만에 한화 이글스 주루코치로 그라운드에 다시 돌아왔다. 은퇴하기 바로 전까지 다음 시즌을 준비해 주고 있었다. 평균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제 자신과 은퇴를 약속하던 차였는데 구단에선 은퇴하길 바랬다.

쉬던 중에 우연히 김용동 감독을 만나고 코치 제의를 받았다. 선수가 아닌 코치와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재미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됐다. 대화를 통해 선수들을 파악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경험과 노하우를 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 기아 팬들은 서운할지 몰라도 팬들이 내 인생을 설계해주진 않는다. 서운하겠지만 앞으로 좋은 지도자로 거듭나면 된다. 성적이 좋은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코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고쳐야될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노력을 다한 사람이다”

부터 시작한다. 물고래 조련사처럼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내가 이종범이니까 이렇게 해’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과거에 있었던 권위의식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선수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 실패를 해봐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젊고, 열정 있고, 자신감 있고, 패기 있을 때 실패는 성공을 만든다. 실패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많다.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수렴효율 뿐이다. 내 야구기록도 평균 3할대에 그친다. 10번 타석에 나서면 7번은 실패했다. 그러면 안타를 치지 못한 7번에 대해 철저한 분석에 들어가서 다음에 잘 치려고 노력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노력을 다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당연한 과정일 뿐이다.

취업을 Job아라

⑤ 취업 성공 사례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취업전략본부에서 맞춤교육 제공 받아



대한민국 대표 민원청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담당관' 직원들. 주미 동문은 왼쪽 처음에 위치해 있다.

주미 동문은 2007년 컴퓨터교육과에 입학해 2011년 졸업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실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곳에서 국민신문고 해외홍보 및 수출,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해요. 저는 그 중 견습제도를 통해 공무원생활

을 시작하게 됐죠.” 주미 동문은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학교 선배를 통해 '지역인재 견습직원'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다. 견습직원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점, 토익, PSAT(공직적격성평가) 등의 성적이 필요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점관리를 꾸준히 했고 토익 공부도 병행했다. PSAT 성적

은 4학년 되는 해 6월부터 준비했다. “저는 공부에만 열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분전환을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같이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죠.” 주씨는 7급 공무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을 취업전략본부를 활용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스터디조를 만들고, 시험준비에 필요한 강의실, 동영상강의, 책 제본·복사 등을 지원했다. 또 합격한 견습선배를 초청해 질의 및 응답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또 자신의 능력보다는 주위 좋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 1학년 때 과대표를 맡았고 2, 3학년 때에는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좋은 정보들을 알 수 있었어요.” 주미 동문은 학생회 활동뿐만 아니라 근로장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박영순(온누리약국) 대표이사를 만났다. 이 분을 통해 많

은 조언을 듣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참여하면 큰 도움이 돼요.” 주 동문은 지금도 어학 공부 등 다양한 공부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 또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을 위해 행정학을 배울 생각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 진학할 계획이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돼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직원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주 동문은 후배들에게 'without haste, but without rest' 라는 괴테의 명언을 말해달라고 싶다고 한다. 이는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라는 뜻이다. 급하게 마음먹고 하는 것보다 꾸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종환 시인의 작품 중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리고 져트면서 피어난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져고 흔들리고 있더라도 언젠가 아름답고 빛나는 꽃들이 될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행 좋아... 과감한 승부 걸어라

“대학 시절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시도하세요.” 홍현주 동문은 2005년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2009년 졸업했다. 처음에는 (주)다움서비스에 취업해 3년 가량 메일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회사를 그만 두고 여행을 다니면서 1년 간 쉬었고 현재는 국제워크캠프기구라는 NGO(비정부기구)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다. “취업박람회에서 다음이란 기업을 알게 됐어요.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고 사기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지원했습니다.” 홍 동문은 다음서비스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진정 하고 싶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쌓였다. 또 도와 및 해외 지역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 확신이 들자 사표를 내고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장점을 어학 능력과 상담하는 능력에서 찾은 그는 국제워크캠프기구에서 교육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제가 가장 자신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학 능력도 뛰어나서 현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홍 동문은 대학시절에도 외국어를 공부하고 구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평소 영화 등을 통해 외국어를 공부했다. 또 뉴스위크와 같은 주간지를 읽으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졌다. “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돼요.” 홍 동문은 대학시절 여학생취업캠프, 해외탐방프로그램, 교육방송국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대학시절 학교에 열리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했다. 또 교육방송국 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이와 함께 배낭여행, 워크캠프 등 여러 국가의 문화를 체험했다. “대학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사회에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열정과 젊음, 호기심을 갖고 일을 만들어갔던 추억이 20대에 있다는 것에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홍 동문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3학년 2학기부터 취업에 대한 걱정을 갖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걱정되고 막막함이 엄습했다. 이 걱정은 당시에는 무척 컸다. 그러나 현재와서 돌아해보면 스펙에 연연해하지 않고 여행을 다닌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한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를 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1년, 2년이 늦고 빠르고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홍현주 동문은 후배들에게 대학시절에는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라고 말한다. ‘내 친구들은 공모전, 어학 성적 등 준비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초조해 하지 말고 마음 내키는 일을 하라고 조언한다. “친구, 교수님 혹은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다 졸업하면 더 마음이 공허해져요. 지금 복잡하고 힘들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힘들어 하세요. 내일은 분명 스스로를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한 뼘 성장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



2011년 다음서비스를 그만두고 여행하던 중 만난 이탈리아 친구 키아라와 인도 자이살메르에서 찍은 사진이다. 홍현주 동문은 회사를 그만두고 경험했던 여행이 현재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제주대신문 DVD축쇄판 키워드 ‘취업’ 검색해보니 30년 전에도 오늘도 취업은 어려워



지난해 5월 17일 경상대학 2호관에서 열린 '힘냅서! 제주의 청춘' 강연에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

2013년 취업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위기’, ‘비상’, ‘대란’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 그만큼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학생취업에 대해 어떤 기사가 주를 이뤘을까? 먼저 제주신문(현 제주일보)의 1984년 11월 17일자 기사를 보면 ‘취업을 낮아 초비상’이라는 기사가 있다. 그 당시에도 취업률이 떨어져 학교 차원에서 도내 기업에 채용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사가 실렸다. 또 제주대신문 1986년 3월 5일자 ‘86년도 대학운영 방침’을 보면 낮아지는 취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취업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구는 대학·학과별로 취업지도와 총장이 직접 기업체에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제주대신문에는 ‘취업준비로 외국어 공부에 매달린다’, ‘취업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보도기사부터 취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 등 기획기사도 다 양했다. 좌담회, 장기개발 제안, 본교 취업 대책의 문제점, 직업변화와 유망직종 등 취업과 관련해 다양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총장 인터뷰, 신임 보직교수 인터뷰에도 취업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1992년 10월 20일자 제주대신문에 실린 좌담회 내용은 인턴제 확대·채용인원 감소 등으로 취업난 가중으로 인해 어학실력배양·자격증 취득 등 저학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교 취업 대책의 문제점 기사에서도 폭넓은 정보수집, 개개인의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지금 시점에서 내보내도 전혀 손색없는 기사일 정도다. 그만큼 취업 시장은 수십년째 바뀌지 않았고 대책또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총학생회 공약 관련 기사에서도 취업은 빠지지 않는다. 2000년 ‘자주선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미래창조’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모두 취업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이후에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학우들에게 취업 정보를 알려주겠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직업능력개발원 취업란을 연계해 취업 홍보를 도와주겠다’, ‘취업박람회를 열겠다’ 등 무수한 취업 관련 공약을 걸었다.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1999년 12월 7일자 ‘취업을 준비하는 마음’, 2012년 9월 12일자 ‘저조한 취업률 분발을 촉구한다’는 직접적인 취업과 관련된 시설도 자주 보였고 신입생이나 재학생에게 에둘러 말하는 내용에도 취업 이야기는 들어갔다. 이와 함께 취업 수거나 인터뷰들도 제주대신문에 실려 있다. 또 사법고시 합격생 등의 인터뷰도 많이 나와 있다. 즉, 제주대신문이나 제주 지역 언론을 살펴보면 취업 관련된 기사는 30년 내내 비슷했다. 취업을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자주 등장했으며, 취업 관련 기구를 설치해야, 취업 관련 기구를 격상시켜야 등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30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취업은 대학생의 주요 관심사였다. 김동현 기자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sw5030@hanmail.net

교수신문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과정을 아십니까?



김 송 이
의학과 교수

“

학사과정의 수업계획표를 보니

선배없이 허둥대며 수강신청했던

의예과 1기 내 모습 떠올라...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대비해

3년간의 학사과정 알차게 보내길

”

1996년 3월은 내가 제주대학교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때이다. 당시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의예과가 전국에서 43번째로 개설이 되었고 제주대학교 의예과 1회로 나를 포함하여 총 39명의 정원으로 신입생이 선발되었다. 의예과 2년, 의과대학 의학과 4년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의학과 1기 졸업생은 27명이 되었고 1기 졸업생들은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제주대학교 부속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나는 인턴과 내과 레지던트 때에 제주대학교 부속병원에 파견형식의 근무로 몇 달간을 근무하였고 2008년도에 본교에 교수가 되어 귀환을 했다.

의예과 신설에 이어 1998년 3월에 신설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2008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였고 2011년에 의과대학이 폐지되어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단일체제로 운영 중이다. 2001년에 기존의 제주의료원을 인수하여 개원한 제주대학교 병원은 2009년에 현재의 아라동으로 이전하여 개원을 하였고 개원 10주년을 넘긴 상황에서 현재의 제주대학교 의전원은 국내의 어느 의과대학/의전원과 비교하여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안과 밖이 고루 성장을 하였다.

의사 혹은 의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내가 받았던 교육처럼 2+4,

즉 의예과 2년과 의학과 4년 총 6년간의 교육이 표준이었으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의 일환으로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명명하였고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2008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여 2013년 2월에 두 번째 의전원 졸업생을 배출해 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잘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사학위 취득자들을 입학 대상으로 하고 졸업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졸업시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의학과 졸업 후 고된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밟으며 대학원을 다니고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기존의 교육 과정에 비해 졸업과 동시에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의과대학에 비해(국립대 기준이기는 하지만) 등록금이 비싸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이 단점이라서 의전원 교수들 사이에서 의학과 교육과정과 여러 모로 비교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3년부터는 우리 대학 의전원 교육 과정이 좀더 복잡해졌는데, 2013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학석사 과정 때문이다. 의전원 학석사 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입학 대상으로 하고 3년간의 학사과정을 거친 이후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석사 과정을 같이 이수하게

되는 7년간의 과정으로 기존의 의과대학과 비교하여 예과 혹은 의학공부로의 준비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했지만, 다른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먼저 따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전원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2013년에는 의전원 석사과정 정원 40명과는 별도로 20명의 학석사 과정 학생이 합격하여 입학을 하였으며 학사 과정을 시작한 상태이며 3년 후 학사 과정을 수료하면 2016년부터는 의전원 석사과정 학생들과 의학공부를 진행하게 된다.

4월부터 인체의 구조와 기능 강의를 시작으로 정신없는 수업이 진행될 석사과정 학생들과 별도로 교양과목과 의학영서나 생화학 같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진행되는 학사과정의 수업 계획표를 보니 1996년도에 선배도 없이 허둥대며 동기들과 함께 수강신청을 하던 내 모습이 떠올라 찡한 마음과 함께 옛 기억에 잠기게 된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의전원 교수인 나도 생소하지만 한때, 해당 학생들 역시 동일한 과정을 밟은 선배들이 없어 막막한 심정이리라. 바라건대,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 뜻깊은 그들이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면 알찬 3년을 보내기를 바란다. 3년 후 석사과정에 진입할 때 갑자기 늘어남 학습량에 허둥대지 않기를. 이는 3년의 학사과정을 알차게 만들어야 할 우리 대학 교수들의 책임이리라.

동문칼럼

사회에 관심 갖는 건 대학생 책무



김 정 도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연구소
사회과 02학번

대학생과 사회와의 연관관계는 무엇일까? 혹시 한때 뜨겁게 제기되던 대학생 개XX론을 기억하는가? 왜 소위 386, 486세대는 20대 대학생들에게 상육을 했던 걸까? 선뜻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20대 대학생들의 힘든 대학생활을 반영한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한다. 등록금에 치여 알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취업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야만 하는, 인제부턴가 고3의 생활과 판박이인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씁쓸하는, 스펙과의 전쟁 때문에 피로로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턱까지 내려오는 것쯤은 참고 살아야 하는 지독한 대학생의 현실. 그것이 역으로 대학생들을 사회와 단절시키고 그들에게 바닷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실망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학생의 역할은 말 그대로 투사였다.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에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을(물론 아직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넘어서진 못했더라도)쟁취했고, 독재자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배움을 통한 사회참여에 있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민주주의, 전혀 몰랐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이념과 서적들을 통해 배운 것은 사회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대학생은 경찰과 검사, 언론인 보다 영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시대는 바뀐다. 1980년대 이후는 민주적 발전은 1990년대를 거치고 21세기에 들어서 점점 후퇴의 길을 걸어왔다. 요새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가? 그중에 대학생에게 가장 ‘핫’한 취업문 제만 보더라도 없던 명예퇴직이 생기고 정리해고가 생기고, 비정규직이 생겼다. 그것도 모자라 파견노동에 파트타임까지. 어느새 우리 주위에 들어온 신자유주의는 더한 경쟁을 원했다. 경쟁에서 패배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다. 현재 대학생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커왔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큰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밖에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란 말인가?

그런데 사실 사회란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도 위험하고,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위험하다. 왜냐고? 모르면 그 만큼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을 바꿔보자. 사회에 나가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사실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나가게 된다. 우수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당신이라도 말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노동과 관련된 사회현안이 많다. 재능교육,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노동문제가 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것이 우리일이 아닐 거라고 착각을 한다. 많은 대학생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웃긴 것은 대학을 나가 취업을 하는 순간 대학생도 노동자가 된다. 위에서 설명했던 무자비한 신자유주의의 칼날이 늘 목 언저리 어디가에 놓이게 된다. 적어도 대학생활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고 때로는 참여도 한 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와 아닐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간단히 얘기해 노동법을 알고 사회에 나올 때와 모르고 나올 때의 차이쯤이라고 생각해 보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이렇게 실용적인 것이다. ‘정의의를 위해서 투신 하겠어’ 란 아주 고결한 결정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알라는 것이다.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부정의한지, 얼마나 불균형하고 불평등한지.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나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나갈지를 알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없이 어느 순간 당신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좀 더 가치 있는 풍요를 즐기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선택은 여전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몫이다. 어쨌든 오늘 이 글을 읽어준 당신을 위해 멀리서나마 응원한다. 부디 좋은 선택과 길을 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

들아르방

노교수의 가르침과 의미있는 삶



김 명 지 편집장

멋진 강의 한 편을 들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이라 노교수의 가르침은 내 가슴 속에 아로 새겨졌다. 노교수의 한마디에 눈물을 흘린 이도 더러 있었다. 생면부지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자는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정년교수 퇴임식에서였다. 이번에 고경환(영어영문학과) 교수, 오덕철(생물학과) 교수와 김문홍(생물학과) 교수, 강정숙(식품영양학과) 교수, 박대수(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가 정년퇴임했다.

노교수들의 퇴임사는 일종의 고백록(告白錄)이었다. 제주대와 인연을 맺은 이야기, 선생

으로서 지치지 못했던 ‘직무유기’ 고백까지. 특히 고경환 교수는 사후에 시신을 제주대학교 병원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였을까. 책 한권이 생각났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미치 앨봄 저)이라는 책이다. 필자는 이 책을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다.

이 책은 스포츠관련 기자와 칼럼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삶을 살던 미치 앨봄은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대학 스승인 모리 슈워츠와 관련된 방송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는 자신의 노교수가 척수신경과간뇌의 운동세포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루게릭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감정이 살아나는 미치는 매주 화요일 모리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그가

매주 화요일 모리를 방문하며 죽음, 두려움, 나이가 든다는 것, 탐욕, 결혼, 가족, 사회, 용서 등의 주제를 토론하고 배움을 얻는 과정을 글로 정리해낸 실화이다.

이 책에서 책갈피로 표시해둘 정도로 필자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다. 모리 교수가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제자에게 설명하는 대목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에 대해 얘기한 것 기억하나? 적어두기도 했지만, 암송할 수 있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라. 자기를 둘러싼 지역 사회에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 데 자신을 바쳐라”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필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개인적인 고민에 해결의 단서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필

자의 고민만은 아닐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대학생들의 고민일 것이다. 가야할 목적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경주마의 삶은 아니었을까. 또 앞서 달리는 경주마를 따라 달리는 말은 아닐까.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학기의 출발선에 서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구절이라 생각한다.

어떤 이들, 특히 일부 기성세대들은 성공은 누구보다 먼저 저 앞에 쫓힌 것만을 뽑아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 모두 의미 있는 학기를 보내기를 바라며 시 한편으로 글을 닫는다.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내게 중요하지 않다/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오리마마운터 드러머, ‘초대’ 중

독자기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사용내역 공개를

비뚤어진 캠퍼스 음주사고 예방을

청렴한 총학생회를 위한 제언



전 호 광
수의학과 2

개강을 보름 앞둔 2월 중순, 대학가 소식이 신문 매인기사로 다루어졌다. 일부 서울·경기관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대학축제 이벤트 업체로부터 ‘축제 행사’ 수주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다. 30여개 대학에서 21회에 걸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에 해당하는 빚돈을 받아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개강을 앞두고 수의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필자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기구 간부들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일일 것이다. 방학 중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작도 전에 불신이 생길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가에서 ‘리베이트’ 건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총학생회장이 되면 차를 뽑는다. 취업을 알아서 시켜준다’는 등 무수한 루머들이 나도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형국이다.

어느 대학에나 있는 루머이고, 우리학교에서도 나도는 루머이다. 문제는 행사에 관한 ‘리베이트’ 건이 대학의 불편한 이면의 전부는 아니다. 일명 ‘스폰’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는 지역사회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지원물품 또한 감춰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대학 총학생회가 ‘리베이트’

를 받았거나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연한 비밀이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하고, 투명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한 사용내역 공개가 필요하다.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 학과 학생회 및 대의원회에서 연간 집행하는 2억이 넘는 예산의 세목을 일반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물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하지만 신뢰받는 학생자치기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 더욱이 현재 밝혀진 대학은 일부 서울·경기관 대학이기에 전국단위로서가 확대된다면 추가 사례가 밝혀질 수도 있는 현 시점에서 스스로가 청렴한 학생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많은 학생들은 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해주신 돈으로 등록금을 낸다. 또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아끼면서 때로는 휴학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낸다. 이렇듯 어렵게 납부하는 등록금 중 일부가 학생자치기구에 집행된다. 투명한 자금관리와 내역공개로 자신이 낸 등록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했고, 더불어 ‘스폰’ 내역 또한 공개하여 대학생을 후원하는 지역사회 기업을 알리면서 스스로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짧게나마 학생회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등록금을 낼 때, ‘학생회비’는 선택사항으로 납부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선택사항이기에 납

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의 대표자인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해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돈이기에 제대로 건지하지 않을 경우, 일부 행사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학생회 활동이 차질 없도록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돈이 잘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라고 필자 스스로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의문을 던져본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더 건강하고 더 청렴한 학생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 기 환
국어국문학과 2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대학 내 음주 금지 법안을 들은 후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생들은 분명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술 문화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당면히 우려할 자유를 규제받는 일이 벌어진다.

당장 이 법안은 올해 4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으로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기던 막걸리 빨리 마시기와 같은 전통 있는 축제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간단히 한 잔 걸치며 선후배와 사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낭만도 사라졌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음으로 면학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분명 어느 정도 면학분위기를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고 또한 폭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미미하지만 꾸준히 집계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허나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면학분위기를 흐리고 자제력을 잃어 사건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폭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 또한 보건복지부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고, 실제로 대학 내 주류 판매 금지도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극소수의 사건사고를 예로 들어 자신들의 취지를 정당화하여 건전하게 술을 즐기는 다수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캠퍼스가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출입하여 잦은 음주를 일삼는다는 것 또한 그 사례가 전체 음주 학생들에 비해 매우 적고, 그 음주가 보건복지부가 우려하는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적다. 또한 나로 하여금 더더욱 아이없게 하는 것은 학내 일부시설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다. 애초에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가지고 행사하는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화를 돋우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

주취자에 의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 방법이 지나치고 방향 또한 엉뚱한 곳으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일부분만 본 나머지 타초경사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캠퍼스 내 음주를 금지하는 대신 번거롭더라도 각 건물에 장부를 비치하여 일정량 이상 음주 할 경우 신고를 하는 방법이나, 교내경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학내외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실린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 5천원을 드립니다.

기고를 보내실 때에는 이름, 학과, 게재번호를 기입해 press@jejunu.ac.kr로 원고와 함께 보내주시십시오.

